

11. (가)의 관점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수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학적 진리를 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수학적 진리가 '1+1=2'라는 간단한 공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어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신학이 얽힌 문제에서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나)	

- ① 이성적 논증을 통과한 교리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② 신앙의 자유보다 종교 간 교리의 일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 ③ 성스러움의 세계보다 세속적인 세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 ④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타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 ⑤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性]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p> <p>을: 하늘의 도(道)는 다투지 않고도[不爭]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답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도모한다.</p>
(나)	

- ① A: 하늘을 인간이 지닌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보는가?
- ② B: 하늘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보는가?
- ③ B: 하늘을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실체로 보는가?
- ④ C: 하늘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존재로 보는가?
- ⑤ C: 하늘을 예(禮)의 제정과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보는가?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일 수밖에 없고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을: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이들로 구성된 국가는 국제 규범을 지켜 나감으로써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갑:	국제 규범은 국익에 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어길 수 있으며, 국제 관계는 다시 분쟁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만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국제 규범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개별 국가들은 국제 규범의 준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를 구분해야 하는가?
- ② 국제 규범의 보편타당성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 ③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인간 본성의 변화가 필요한가?
- ④ 국제 관계에서 개별 국가들 사이에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가?
- ⑤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4.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樂]이 바르게 연주되어야 뜻이 맑아지고, 예의가 닦여져서 행실이 완성되고, 눈과 귀는 총명해진다. 또한 혈기는 화평(和平)스럽게 되며, 풍속이 순화되어 온 천하가 모두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덕(德)으로 인도되어 서로 즐거워한다.
--

- ① 예술은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가?
- ②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예술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하는가?
- ④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⑤ 예술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가?

1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만물의 도리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반성하며 정성을 다하여 도리를 지키면 즐거움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을 것이다. 힘써 남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면 인(仁)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될 것이다.
(나)	<p>○ ㉠의 도(道)는 음양(陰陽)이 짝을 이루어 하늘과 땅의 신령에 통달하는 것이니 진실로 인륜(人倫)상의 크나큰 일이다.</p> <p>○ 천지(天地)가 생긴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생긴 다음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생긴 다음에 ㉠이 있고, 그 이후에 부자(父子)가 있다.</p>

- ① 효(孝)와 자애(慈愛)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이다.
- ② 항렬(行列)과 촌수(寸數)를 고려하여 정성을 다하는 관계이다.
- ③ 청소년기에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권면(勸勉)해 주는 관계이다.
- ④ 이성(異性)이 결합하여 분별 있게 서로 공경을 다하는 관계이다.
- ⑤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우애를 실천하는 관계이다.

16. 다음 글에 나타난 스포츠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쟁은 스포츠의 일부이다. 경쟁이라는 개념을 상대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탐구하고 노력하는 협력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경쟁은 우정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우정의 가능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쟁적 놀이는 스포츠의 '결핍된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승리만을 위한 집착은 경기 규칙의 준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단순한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① 스포츠에서 경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스포츠의 박진감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산출해야 한다.
- ③ 스포츠 선수들은 동료애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 ④ 스포츠의 유일한 목적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⑤ 스포츠는 선수들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7.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줍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며 자유 시장 경제를 왜곡합니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경제 발전을 저해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의 준수에 국한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이윤 추구가 양립 가능함을 모르고 있다.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의 집단은 도덕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순수한 도덕성을 집단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영향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다면, 이는 그것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기 >

- ㄱ. 개인의 선의지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 ㄴ. 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 ㄷ.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구성원의 도덕성에 의해 결정된다.
- ㄹ.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요구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죽음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본래 삶이나 형체, 기(氣)라는 것은 없다. 그저 혼돈 속에 섞여 있다가 변하여 기가 생겼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었으며 삶이 변하여 죽음이 되었다.

을: 죽은 후에는 쾌락도 고통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죽음에 대한 갑, 을의 관점을 비교하면, ㉠ 갑은 삶과 죽음을 사계절의 순환과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며, ㉡ 을은 죽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무(無)의 상태로 본다, 그러므로 ㉢ 갑은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 을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상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 갑, 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동물들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와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기르기 위해 동물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병: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는 것을 선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 보기 >

- ㄱ. 갑은 을과 달리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강조한다.
- ㄴ. 갑은 병과 달리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 ㄷ. 을, 병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
- ㄹ. 갑, 을, 병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할 존재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①	2	③	3	②	4	③	5	④
6	⑤	7	③	8	②	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⑤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③	19	④	20	②

1. [출제의도]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비교하기

A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 B에는 실천 규범 윤리학의 핵심 탐구 과제가 들어가야 한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객관적 도덕법칙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구체적 삶에 적용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 한편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핵심 탐구 과제이고, 각 문화권의 도덕 관습을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핵심 탐구 과제이다.

2.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민본사상 비교하기

(가)는 민주주의, (나)는 민본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상이며, 국민에 의한 정치를 강조한다. 민본사상은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민본사상은 모두 민심을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평등과 통치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본사상과 차이를 보인다.

3. [출제의도] 불교의 수양론 이해하기

(가)는 대승 불교의 공(空)사상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세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연기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본다. 도가에서는 허심과 심재의 수양 방법을 통해 인위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을, 유가에서는 거경과 신독의 수양 방법을 통해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확충할 것을 강조한다.

4. [출제의도]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비교하기

소전제 ㉠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는 양질의 정보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는 정보를 공유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질 높은 정보 생산을 위한 창작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출제의도] 관례의 의미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전통 의례는 관례이다. 관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의 하나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치르는 의례이며, 관례를 치르고 나면 사회적으로 성인(成人)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6. [출제의도] 순자와 플라톤의 직업관 비교하기

같은 순자, 을은 플라톤이다. 순자는 예(禮)를 통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합당한 직업을 갖게 하여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보았다. 한편 플라톤은 각 개인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노직과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비교하기

같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되고 분배가 전적으로 개인 간의 자발적 교환에 맡겨지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보았다. 한편 노직과 롤스는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분배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다 할지라도 기본적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직은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이행 감독을 위한,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8. [출제의도] 과학 기술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토론 장면의 남성은 과학자가 윤리적 평가로부터 벗어나 연구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한다. 한편 여성은 과학자가 연구 자체의 정확성은 물론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연구 활동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낙태의 찬반 논거 이해하기

같은 태아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입장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을은 태아가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부의 생명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 [출제의도] 공직자의 청렴의 자세 이해하기

신문 칼럼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직자 스스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절제의 덕을 함양함으로써 청렴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 이해하기

(가)에서는 수학적 진리는 공리이므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가능하지만 형이상학과 신학이 관련된 문제는 이와 달라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과 신학이 얽혀 있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신과 다른 믿음이나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12. [출제의도] 맹자와 노자의 하늘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가)의 갑은 유가 사상가인 맹자, 을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이다. 맹자는 하늘을 인간이 지닌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반면 노자는 하늘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의 법칙으로 보고, 인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입장 비교하기

국제 관계에 대해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 입

장이다. 갑과 을은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갑은 인간을 이기적이며 권력 지향적 존재로 규정하고,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국제 규범의 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이다. 도덕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심미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하며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15. [출제의도]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부부 관계 이해하기

(가)는 유교 사상이고, (나)의 ㉠에 들어갈 말은 '부부'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로서 부부유별(夫婦有別)을 강조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성이 결합된 부부가 분별 있게 서로를 공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6. [출제의도] 스포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포츠에서의 경쟁을 우정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 을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니부어의 글이다.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의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같은 장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차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아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상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로 보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이다.

20. [출제의도] 칸트, 싱어, 슈바이처의 환경 윤리 비교하기

같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슈바이처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에 대해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은 동물에 대하여 간접적 의무만을 지닌다고 보았다.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며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

척'을 강조하였다. 슈바이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신성하게 대하라는 생명외경사상을 주장하였다. 한편 세 사상이 모두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